

투데이 칼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삶을 마감하기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미국 남가주대학 심리학과 골드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적인 습관'을 연구 분석하였는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걸음걸이가 빠르다', '일지리에 앉는다', '항상 웃음편 얼굴이다', '집중력이 있다'의 습관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을 위해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총수나 회사 중역은 대다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진취적인 사고방식과도 통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으며, 훌륭한 상사는 예전에 한 번 실수를 했던 직원일지라도 일을 맡

길 때에는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잘 해낼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사는 아랫사람을 신용하면서 일을 맡기므로, 아랫사람도 지난 번의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

신중한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망이 밝은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하고,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

식은 짧고 쾌기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강한 승부욕을 지나다보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지나친 자만심은 화를 부른다.

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다. 사촌이 가난하면 당신에게 돈을 빌려 올 것이고, 어쩌면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촌을 보면서 우물쭈물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득이 많고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 노하우를 귀담겨볼 수도 있고, 그 땅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 줄 수도 있다.

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촌이 관리해달라고 맡긴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 되어 마침내 직원이 몇 천 명이 이르는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내 친구도 어린 시절부터 남의 세계에서 심부름하며 착한 마음으로 경영의 사고로 근무하여 사업주로부터 업체를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고 그 덕으로 지금은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성공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

세상을 불만, 불신, 불안으로 살지 말고 배려와 봉사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상승효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설

추석 대목, 골목 상권에도 관심 가져야

추석 대목이다. 그래서 다시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전통 시장에서 물품 구매하기와 골목 상권 살리기가 그것이다. 전통 시장에서 물품 구매하기 운동은 도내 자치단체에서 '은누리 상품권' 발매 등 주도적으로 운동차원에서 벌이고 있으므로 오늘이 아니라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골목 상권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싶다.

전북도도가 지난해 추석 무렵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었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다. 그 성과가 별 볼일 없다면 여기 또 다시 다짐해줘야 할 것이 있다. 골목 상권을 살려주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영세업체들의 형편부터 살펴야겠다. 영세 업체들의 형편부터 살펴라는 주문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말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있다. 골목 경제 활성화가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열려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동안 영세한 업체 쪽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번

있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목 경제의 주인공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 괴롭히는 일을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작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도 문을 닫는 업체들이 하나 둘이 아닐 터인데 현실을 보면 앞으로 영세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게 뻔하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대형 마트들의 독식으로 지난 십수년 간 그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사라졌는가를 말이다.

그동안 다들 말 따로 실행 따로의 행정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골목 상권을 붕괴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슈퍼마켓 가게들이 문을 닫는 판국인데 골목 경제 활성화 운동은 앞뒤가 맞지 않다. 매매가 활발하지 않아 지꾸만 문을 닫는 골목 경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영세한 상인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호소에 귀를 주지 않는다면 풍성한 한가위 운운은 입에 발린 발린 말일 뿐이다.

도내 시군 지자체 경쟁력이 이래서야

도내 13 시군의 경쟁력이 전국 의 밑바닥 수준이라는 보도이다. 보도된 기사를 읽어보니 전국 상위권에 오른 완주군을 제외하면 다들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 상태며 교통 인프라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였지만 정작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완주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부분 실망스러울 수준이다. 재정 능력만 놓고 보면 전주시가 30%대 수준이고 군산시가 24%대 수준이고 익산시가 17%대 수준이고 김제시와 정읍시는 간신히 10%대를 턱걸이 하고 있다는 그 보고 말이다.

이번에 다시 또 밝혀진 내용을 보고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뻔하다. 그래서 예전에 한 두번 당부했던 게 아니지만 내실 있는 살림외에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 전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의 현주소와 관련해서 생각이 많아져야겠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먼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전북 지역은 안팎으로 문제가 많다. 전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늦은 고장을 꼽으려면 전북이 빠지지 않고 있

다. 매년 이웃 전남과 함께 부끄러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전북의 경제 성장이며 살림살이라는 게 도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도민의 소득이 전국 최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직시하는 마음 바탕 위에서 전반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소득은 전국 최저인데 근로빈곤층이 전국 최다라는 진단이다. 이같은 지적에 늘 하는 말이 그렇고 그렇거니와 식의 반응을 보여선 안 된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전북의 살림살이 현실을 밝은 쪽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역 살림과 관련해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해마다 재정이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십 수년 간 지속된 경기침체를 타할 수는 없다. 전북도는 내실을 위해서 자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에도 말한 바 있지만 정부는 손만 내미는 지자체를 골목 보고 있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독자제언

추석명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빈집털이 예방

이번 추석 명절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여유없는 최장기간으로 인해 최대의 명절 연휴기간을 고향으로 가거나 국내 및 해외여행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시간 집을 비우기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빈집털이를 예방하자.

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쉬운 방법은 바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창문이 열려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외출하는 경우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잠겨 있는지 2~3번 확인해야겠다.

또한 번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비밀번호를 바꿔 주는 것이 좋겠다.

둘째, 빈집임을 티내지 말자.

오랜 시간 집을 비울 경우 우편물, 신문, 광고지, 우유 등 배달물품이 쌓이게 된다.

이 경우 빈집털이범들에게 가장 먼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미리 연락하여 배달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고,

신문, 우유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변에 부탁하여 빈집임을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셋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전기기를 이용해보자.

라디오, 티비를 켜놓아 마치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예약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가 계속 울리지 않게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종 소리만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인터폰을 꺼 놓는 것도 필수이다.

넷째, 집안의 귀중품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

마지막으로 경찰관기동대는 추석 연휴 집중되는 빈집털이 등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철 전북경찰청 기동대 순경

독자제언

게임 중독, 부모 역할 중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 밖에 나오지 않던 20대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 게임 중독으로 20대가 아버지 살해, 2 살배기 친아들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게임중독 20대 아빠 등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게임 중독이란 게임, 인터넷 사용에 있어 자율적인 통제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병적으로 집착하여 게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독증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 문제는 대부분 사이버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현실과 게임의 모호한 경계선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현실보다 게임을 위주로 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1차적인 원인은 가정에 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녀가 장시간 게임을 하도록 방지

하는 경우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욕망하는 경우에는 반발심으로 인하여 더욱 더 게임에 빠져든다.

어떻게 보면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실생활에서 자녀의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게임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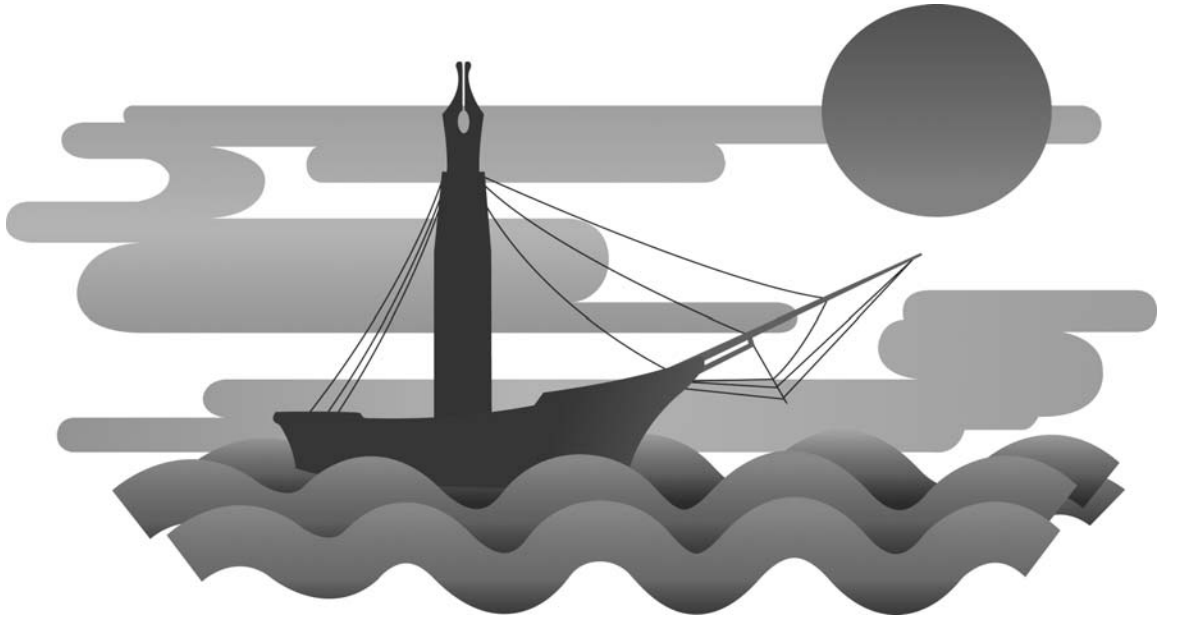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녀가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므로 자녀와 게임을 같이 하는 것도 좋다.

자녀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거나 자녀가 특히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한다면 자녀와의 공통분모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화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이진제 전주원신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